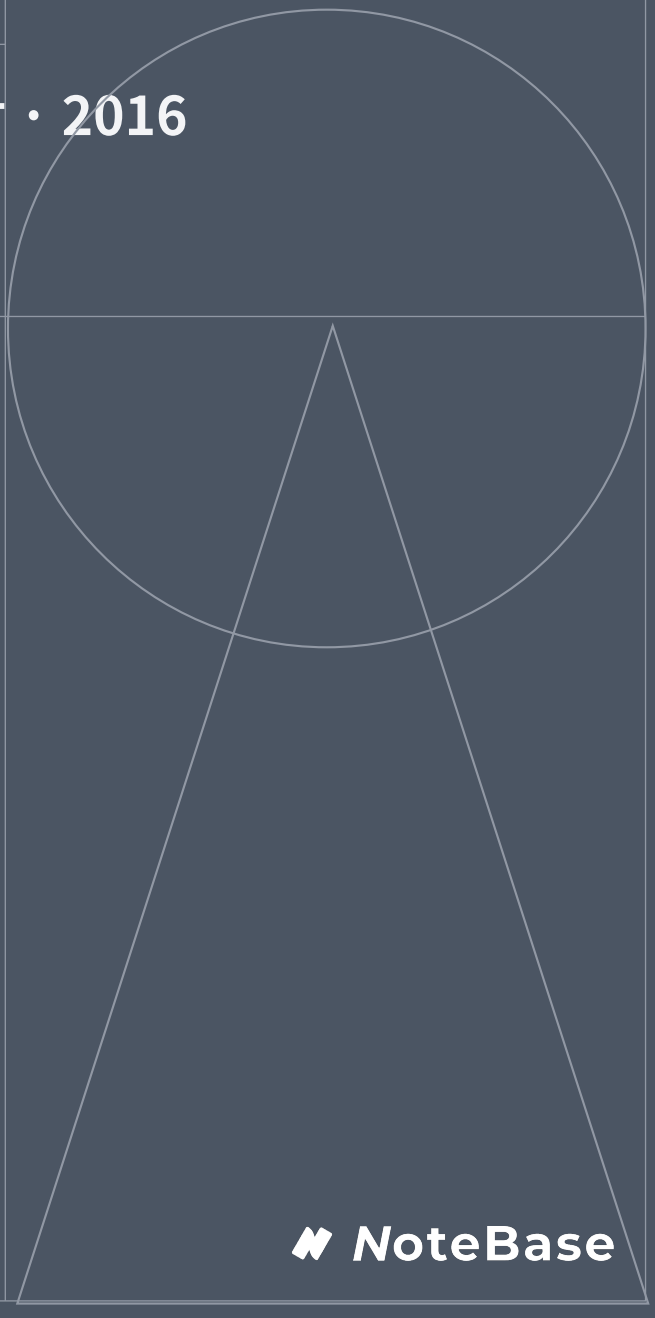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16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16

문 1. 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② 정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정서의 변화는 신체적 변화를 동반한다.

④ 정서는 인지적 평가와는 무관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서의 기본 기능과 정서가 인지적 평가와 맺는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서는 개인에게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주관적 상태이다.
정서는 주의 배분, 의사결정, 신체 반응과 함께 나타나며 인지적 평가와 분리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정서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그런 자극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개인적 의미가 있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② O
정서는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 두려움, 불안, 기대, 만족 같은 정서 상태는 위험 평가와 선호 판단을 바꿀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③ O
정서가 변하면 심박수, 호흡, 근긴장, 표정 같은 신체적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정서 변화에 신체적 변화가 동반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인지적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정서는 사건을 위협, 손실, 도전, 보상 등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올바르게는 '정서는 인지적 평가와 관련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처럼 '무관하다'와 같이 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표현이 함정이다. 정서는 인지, 생리, 행동 경향과 상호작용하므로 한 요소와 완전히 끊어 놓는 진술은 틀릴 가능성이 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서를 묻는 선지에서는 먼저 정서가 개인적 의미 평가, 주의 집중, 신체 반응, 의사결정과 연결되는지를 본다. 이 연결을 끊거나 전면 부정하는 진술은 오답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정서는 의미평가와 연결되고, 주의·판단·신체반응에 함께 작용한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에서 동연이의 판단과 관련이 깊은 개념은?

지수와 동연이는 A대학교 같은 과 신입생이다. 동연이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난 지수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동연이는 지수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① 인지부조화
② 기본적 귀인오류
③ 공변 원리
④ 자기중심적 편향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한된 행동 단서만 보고 타인의 행동 원인을 상황보다 성격 특성으로 귀인하는 오류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핵심 사실 1: 동연은 신입생 환영회에서 지수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장면만 보았다.
- 핵심 사실 2: 동연은 그 행동을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지수의 내성적 성격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판단에 중요한 조건: 한 번의 관찰과 제한된 정보만으로 성격 특성에 원인을 돌렸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 기본적 귀인오류는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 요인보다 성향 요인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 적용 요건: 행동 원인을 판단하면서 외부 상황보다 개인의 성격, 기질, 태도를 더 큰 원인으로 본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낯선 자리라 긴장했을 가능성,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이라 말을 아꼈을 가능성 같은 상황 요인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런데 동연은 이런 상황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지수의 내성적 성격으로 해석했으므로 기본적 귀인오류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인지부조화는 태도와 행동, 또는 두 인지가 서로 충돌할 때 생기는 심리적 불편 상태이다. 이 사례는 동연 자신의 인지 충돌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 원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핵심이다. 틀린 표현은 이 사례를 '인지 간 불일치' 문제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타인 행동의 원인을 성격으로 단정한 귀인 오류이다.
② O: 기본적 귀인오류는 타인의 행동을 볼 때 상황보다 성격 특성을 더 크게 보는 오류이다. 지수가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이유를 행사 분위기나 낯선 상황이 아니라 내성적 성격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므로 이 개념이 정확히 적용된다.
③ X: 공변 원리는 여러 상황에서의 일관성, 특이성, 합의성 정보를 함께 비교해 행동 원인을 추론하는 기준이다. 이 사례는 첫 만남의 단편적 장면만 보고 판단했을 뿐, 공변 정보를 종합한 추론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 판단을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귀인'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정보 부족 상태에서 성향 귀인을 성급히 한 것이다.
④ X: 자기중심적 편향은 자기와 관련된 판단에서 자신의 관점이나 기여를 과도하게 중심에 두는 경향이다. 이 사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인 지수의 행동 원인을 해석한 장면이다. 틀린 표현은 타인 귀인 오류를 '자기 중심의 정보 해석'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타인 행동에 대한 성향 귀인 편향이다.

오답 포인트

귀인 이론 관련 용어가 함께 제시되면 ③ 공변 원리와 ② 기본적 귀인오류를 혼동하기 쉽다. 공변 원리는 여러 단서를 비교해 원인을 따지는 기준이고, 기본적 귀인오류는 그런 비교 없이 타인의 행동을 성격 탓으로 몰아가는 편향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귀인 문제는 먼저 행동 원인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렸는지를 본다. 타인의 행동을 보고 상황 설명을 건너뛰고 곧바로 성격 탓으로 판단하면 기본적 귀인오류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타인 행동을 성격 탓으로 빠르게 단정하면 기본적 귀인오류이다.

NoteBase

문 3. “타인이 존재할 때 숙달된 과제의 수행이 증진된다.”라는 사회적 촉진현상과 관련이 깊은 것은?

① 관중 효과

② 동조

③ 결맞추기

④ 몰개인화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적 촉진과 비슷해 보이는 사회심리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중 효과: 타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각성이 높아져 우세반응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숙달된 과제는 더 잘하고 미숙한 과제는 더 못할 수 있다. / 결정 차이축: 타인의 단순한 존재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 / 키워드: 사회적 촉진
동조: 집단의 압력이나 규범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을 집단 쪽으로 바꾸는 현상이다. / 결정 차이축: 의견이나 행동의 변화가 핵심 / 키워드: 집단 압력
걸맞추기: 상대나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조화를 이루려는 행동 경향을 가리키며, 타인의 존재만으로 수행이 촉진되는 현상과는 다르다. / 결정 차이축: 관계나 상황에 맞추는 조정 / 키워드: 조화 맞추기
몰개인화: 군중 속에서 익명성이 커져 자기통제와 책임감이 약해지는 현상이다. / 결정 차이축: 익명성으로 인한 통제 약화 / 키워드: 익명성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타인이 존재할 때 숙달된 과제의 수행이 좋아지는 것은 사회적 촉진의 전형이며, 수동적 관찰자가 있을 때는 이를 관중 효과라고 본다.

② X
틀린 부분은 '동조'라는 개념 연결이다.
동조는 타인의 의견이나 집단 규범에 맞추어 판단이나 행동을 바꾸는 현상이다.
올바르게는 '타인의 존재가 숙달 과제 수행을 높이는 현상은 동조가 아니라 관중 효과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걸맞추기'라는 개념 연결이다.
걸맞추기는 상대나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조정의 성격이 중심이며, 타인의 단순한 존재 때문에 우세반응이 강화되는 사회적 촉진과는 다르다.
올바르게는 '타인의 존재로 숙달된 과제 수행이 증진되는 것은 걸맞추기가 아니라 관중 효과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몰개인화'라는 개념 연결이다.
몰개인화는 군중 속 익명성 때문에 책임감과 자기통제가 약해지는 현상이다.
올바르게는 '익명성으로 자기통제가 약화되는 것은 몰개인화이고, 타인의 존재로 수행이 촉진되는 것은 관중 효과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타인이 있다'는 표현만 보고 동조나 몰개인화처럼 사회적 상황 일반을 떠올리면 틀리기 쉽다. 핵심은 타인이 나의 의견을 바꾸었는지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가 숙달 과제의 수행 자체를 높였는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타인의 존재, 관찰, 함께 수행, 수행 향상, 숙달 과제라는 표현이 보이면 먼저 사회적 촉진 계열인지 본다. 의견 변화가 나오면 동조, 익명성으로 통제가 약해지면 몰개인화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관중 효과는 '보이면 잘하던 것은 더 잘한다'로 정리된다. 동조는 판단 변화, 몰개인화는 익명성, 걸맞추기는 조화 맞추기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4.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② 부주의 문제로 인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③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에너지가 넘치기도 한다.

④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변화에 대한 거부가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핵심 특성을 ADHD의 부주의 증상이나 조증·과잉행동 양상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및 동일성 고수 성향이 핵심인 신경발달장애이다.
ADHD는 부주의, 잊어버림, 물건 분실, 산만함이 중심 증상이다.
지나친 다변성과 과도한 에너지는 조증 상태나 과잉행동과 더 가깝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남아보다 여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틀리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일반적으로 여아보다 남아에서 더 높은 비율로 보고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부주의 문제로 인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는 표현이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핵심 특성이 아니라 ADHD의 부주의 증상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제한적·반복적 행동이 핵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에너지가 넘친다는 표현이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대표 특성이라기보다 조증 상태나 과잉행동 양상과 더 관련된다.
올바르게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질적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경직성이 두드러진다.

④ O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변화에 대한 거부가 크다는 설명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핵심 특성을 잘 설명한다.
동일한 방식과 환경을 선호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힘들어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잊어버림·물건 분실은 ADHD 부주의 증상을, ③의 지나친 다변성과 높은 에너지는 조증이나 과잉행동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출제자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사회성 결함과 동일성 고수 대신 다른 장애의 증상을 섞어 혼동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폐스펙트럼장애 선지는 먼저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한적·반복적 행동, 변화에 대한 경직성 여부를 본다. 반대로 부주의, 분실, 산만함이 중심이면 ADHD를, 과도한 말과 에너지 항진이 중심이면 조증이나 과잉행동 가능성을 우선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성 결함과 동일성 고수, ADHD는 부주의와 분실, 조증은 다변성과 에너지 항진으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5.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 ~ ㉢에 해당하는 변인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특정 심리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이 동일한 실험 참가자를 선별하여, 두 가지 ㉡심리치료 조건에 각각 배정하고 치료 전과 후의 ㉢불안과 우울 점수를 측정하였다.

① ㉠: 통제 변인, ㉡: 종속 변인, ㉢: 독립 변인

② ㉠: 잠재 변인, ㉡: 종속 변인, ㉢: 독립 변인

③ ㉠: 통제 변인, ㉡: 독립 변인, ㉢: 종속 변인

④ ㉠: 잠재 변인, ㉡: 독립 변인, ㉢: 종속 변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험설계에서 통제 변인, 독립 변인, 종속 변인을 구분하고 잠재 변인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제 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정하게 맞춰 두는 변인이다.
독립 변인은 연구자가 조작하거나 조건을 달리하는 변인이다.
종속 변인은 독립 변인의 영향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되는 결과 변인이다.
잠재 변인은 불안, 지능처럼 직접 관찰하기보다 여러 지표로 추정하는 구성개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ㄴ 종속 변인, ㄷ 독립 변인'이다. 두 가지 심리치료 조건은 연구자가 다르게 배정한 것이므로 독립 변인이고, 치료 전후의 불안과 우울 점수는 그 효과를 본 결과이므로 종속 변인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ㄱ 잠재 변인, ㄴ 종속 변인, ㄷ 독립 변인'이다. 연령은 직접 확인 가능한 참가자 특성이며 동일하게 맞춰 둔 통제 변인이다. 또한 심리치료 조건은 독립 변인이고 불안과 우울 점수는 종속 변인이다.

③ O
연령은 참가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동일하게 맞춘 통제 변인이다. 심리치료 조건은 실험자가 배정한 처치이므로 독립 변인이다. 불안과 우울 점수는 처치 효과를 반영하는 측정값이므로 종속 변인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ㄱ 잠재 변인'이다. 연령은 숨겨진 심리구성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여 통제한 변인이다. 따라서 ㄱ은 통제 변인이고, ㄴ 독립 변인과 ㄷ 종속 변인의 연결만 맞다.

오답 포인트

측정한 점수를 보면 바로 종속 변인인데, '치료 조건'과 '불안·우울 점수'의 역할을 뒤집어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령처럼 참가자 특성을 보면 잠재 변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잠재 변인은 직접 관찰되지 않는 심리적 구성개념이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험문항에서는 먼저 연구자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찾으면 독립 변인이 정리된다. 다음으로 무엇을 같게 묶었는지 보면 통제 변인이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효과를 무엇으로 측정했는지 확인하면 종속 변인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연구자가 조작한 것은 독립 변인이고, 같게 맞춘 것은 통제 변인이며, 결과로 측정한 것은 종속 변인이다. 잠재 변인은 직접 보이지 않는 구성개념이다.

NoteBase

문 6. 인간은 깊이 혹은 거리를 지각하기 위해 다양한 단서를 사용한다. 다음 중 두 눈이 동시에 사용되는 단서로만 묶인 것은?

ㄱ. 수렴(convergence)
ㄴ. 조절(accommodation)
ㄷ. 상대적 운동시차(relative motion parallax)
ㄹ. 망막/양안 부등(retinal/binocular disparity)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깊이 지각 단서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렴은 가까운 물체를 볼 때 두 눈이 안쪽으로 모이는 양안 단서이다.
조절은 수정체 두께 변화로 초점을 맞추는 단안 단서이다.
상대적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움직일 때 가까운 대상이 더 빨리 움직여 보이는 단안 단서이다.
망막/양안 부등은 두 눈 망막 영상의 차이를 이용해 깊이를 지각하는 양안 단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 수렴은 양안 단서이지만 ㄴ 조절은 한 눈만으로도 일어나는 단안 단서이다. 틀린 표현은 '두 눈이 동시에 사용되는 단서로만'에 ㄴ을 포함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ㄱ만 양안 단서이고 ㄴ은 단안 단서이다.'이다.
② O: ㄱ 수렴과 ㄹ 망막/양안 부등은 모두 두 눈의 협응이나 두 눈 영상의 차이를 필요로 하는 양안 단서이므로 옳다.
③ X: ㄴ 조절과 ㄷ 상대적 운동시차는 모두 단안 단서이다. 틀린 표현은 이 둘을 '두 눈이 동시에 사용되는 단서'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ㄴ과 ㄷ은 단안 단서 묶음이다.'이다.
④ X: ㄷ 상대적 운동시차는 단안 단서이고 ㄹ 망막/양안 부등만 양안 단서이다. 틀린 표현은 ㄷ과 ㄹ을 같은 양안 단서 범주로 묶은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ㄹ만 양안 단서이고 ㄷ은 단안 단서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렴과 조절은 모두 가까운 대상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라 함께 외우기 쉬워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수렴은 두 눈의 안구운동이 필요하고, 조절은 한 눈만으로도 가능한 수정체 반응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깊이 단서를 보면 먼저 두 눈의 협응이나 두 눈 영상 차이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두 눈이 모두 필요하면 양안 단서이고, 한 눈만으로 가능하면 단안 단서로 분류된다.

암기 포인트

수렴·양안부등은 양안, 조절·운동시차는 단안이다.

NoteBase

문 7. 부적 처벌(negative punishment)의 예로 적절한 것은?

①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었더니 두통이 사라져, 두통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먹었다.

②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 신용카드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③ 보조 난방기를 사용할 때마다 전기 공급이 끊어져, 보조 난방기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다.

④ 학교에 지각을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어, 지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화와 처벌을 구분한 뒤, 그중에서도 부적 처벌이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적 처벌은 어떤 행동 뒤에 좋아하는 자극이나 혜택을 제거하여 그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절차이다. 결정 차이축은 행동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와 그 결과 행동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이다.
정적 강화는 좋아하는 자극을 더해 행동을 늘리는 절차이다.
부적 강화는 싫은 자극을 없애 행동을 늘리는 절차이다.
정적 처벌은 싫은 자극을 더해 행동을 줄이는 절차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두통이라는 혐오 자극이 진통제 복용 뒤에 사라지고, 그 결과 진통제 복용 행동이 늘어난 경우이다. 이는 부적 강화이다. 틀린 표현은 부적 처벌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싫은 자극의 제거로 행동이 증가한 부적 강화이다.
② X: 신용카드 사용 뒤에 포인트라는 보상 자극이 추가되고, 그 결과 사용이 늘어난 경우이다. 이는 정적 강화이다. 틀린 표현은 처벌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좋아하는 자극의 제시로 행동이 증가한 정적 강화이다.
③ O: 보조 난방기 사용 뒤에 전기 공급이 끊겨 난방이라는 선호 자극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보조 난방기 사용이 줄어든 경우이다. 좋아하는 자극의 제거로 행동이 감소하므로 부적 처벌의 예에 해당한다.
④ X: 지각 뒤에 화장실 청소라는 불쾌한 과제가 주어지고, 그 결과 지각이 줄어든 경우이다. 이는 정적 처벌이다. 틀린 표현은 부적 처벌로 분류하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혐오 자극의 제시로 행동을 감소시키는 정적 처벌이다.

오답 포인트

부적이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결과나 손해를 떠올리면 헷갈리기 쉽다. 여기서 부적은 자극의 제거를 뜻하고, 처벌은 행동 감소를 뜻한다. ①은 제거가 맞지만 행동이 증가하므로 부적 강화이고, ④는 행동 감소가 맞지만 자극을 새로 주었으므로 정적 처벌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행동 뒤에 자극이 추가되었는지 제거되었는지를 본다. 다음으로 그 결과 행동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본다. 제거+감소이면 부적 처벌, 제거+증가이면 부적 강화, 추가+증가이면 정적 강화, 추가+감소이면 정적 처벌이다.

암기 포인트

강화는 행동을 늘리고 처벌은 행동을 줄인다. 정적은 자극의 추가이고 부적은 자극의 제거이다.

NoteBase

문 8. 성격이론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Myers와 Briggs : 특성 차원을 외향성-내향성, 정서적 안정성-불안정성과 같이 두세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② Allport : 개인의 독특성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개별 기술적인 연구방법을 선호하였다.

③ McCrae와 Costa :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성격 5요인 이론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④ Eysenck : 근원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미네소타 다면적성격검사(MMPI)를 개발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격이론가를 각 이론의 핵심 차원, 연구방법, 보편성 주장, 검사도구와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Myers와 Briggs: Jung의 유형론을 바탕으로 MBTI를 만들었고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의 네 차원으로 성격유형을 본다.
Allport: 개인의 고유한 특질을 중시한 특질이론가로서 개별 기술적 접근을 선호하였다.
McCrae와 Costa: 성격 5요인 모형을 정교화하였고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5요인의 보편성을 지지하였다.
Eysenck: 외향성, 신경증성, 정신병성 같은 상위 차원을 제시하였으나 MMPI 개발자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Myers와 Briggs를 두 차원 모형처럼 서술한 점이 틀리다. MBTI는 외향성-내향성에 더해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까지 포함하는 네 차원 모형이다. '정서적 안정성-불안정성'은 MBTI의 기본 차원이 아니라 주로 Eysenck나 성격 5요인 모형에서 다루는 축이다.
② O: Allport는 개인의 독특성을 중시하였고 한 사람의 특질 구조를 깊이 이해하려는 개별 기술적 접근을 선호하였다. 인물과 연구방법의 연결이 정확하다.
③ X: McCrae와 Costa의 비교문화 연구는 성격 5요인이 문화권을 넘어 상당한 보편성을 가진다는 쪽을 지지한다. 틀린 표현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음'이며, 올바르게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큼을 주장하였다'이다.
④ X: Eysenck가 근원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한 점은 맞지만, MMPI를 개발하였다는 부분이 틀리다. MMPI는 Hathaway와 McKinley가 개발한 검사이며, Eysenck는 EPI나 EPQ 같은 자신의 성격검사 체계와 연결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이론가 이름은 익숙하지만 차원과 검사도구를 섞어 놓는 함정이 크다. ①은 MBTI에 Eysenck식 차원을 끼워 넣었고, ③은 McCrae와 Costa의 보편성 주장을 반대로 뒤집었으며, ④는 Eysenck와 MMPI를 혼동하게 만든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인물명과 대표 연결고리를 먼저 대조하면 빠르게 판단된다. Allport는 개별 기술적 접근, Myers-Briggs는 MBTI 4차원, McCrae-Costa는 Big Five의 보편성, Eysenck는 상위 성격차원과 자체 검사 체계로 묶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Allport=개별 기술, Myers-Briggs=MBTI 4차원, McCrae-Costa=Big Five 보편성, Eysenck=PEN 계열이며 MMPI 개발자는 아니다.

NoteBase

문 9. 내적 타당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상황의 대표성

② 피험자 성숙

③ 측정도구의 변화

④ 피험자의 학습효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적 타당도를 직접 위협하는 요인과 외적 타당도에 더 가까운 요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적 타당도는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 조작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 상황, 시간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이다.
상황의 대표성은 실험 상황이 현실 장면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의 문제이므로 외적 타당도와 더 가깝다.
성숙, 측정도구의 변화, 학습효과는 실험 내부에서 점수 변화의 원인을 흐리므로 내적 타당도를 직접 위협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상황의 대표성은 연구 장면이 실제 생활 장면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뜻한다. 이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내적 타당도를 직접 위협하는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② X
피험자 성숙은 시간 경과에 따라 피험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효과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내적 타당도 위협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는 점이다. 실제로는 처치와 무관한 자연적 변화가 결과에 섞이므로 내적 타당도를 직접 위협한다.

③ X
측정도구의 변화는 검사 도구, 채점 기준, 측정자, 기계 상태 등이 달라져 점수가 변하는 경우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내적 타당도 위협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는 점이다. 실제로는 측정 방식의 변화 자체가 종속변수 변화를 만들어 내적 타당도를 직접 위협한다.

④ X
피험자의 학습효과는 사전검사나 반복 노출 때문에 피험자가 문제에 익숙해져 수행이 달라지는 효과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내적 타당도 위협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는 점이다. 실제로는 처치 때문이 아니라 반복검사 경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적 타당도를 직접 위협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상황'이라는 단어 때문에 ①을 실험 내부 조건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상황의 대표성은 실험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결과를 실제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반대로 ②, ③, ④는 모두 실험 도중 피험자나 측정 절차가 변해 원인 판단을 흐리는 전형적인 내적 타당도 위협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실험 결과의 원인 귀속을 흔드는지, 아니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흔드는지를 먼저 가르면 된다. 원인 귀속을 흔들면 내적 타당도 위협이고, 현실성·대표성·일반화 가능성을 흔들면 외적 타당도 쪽이다.

암기 포인트

내적은 원인판단, 외적은 일반화 판단이다. 성숙·도구변화·학습효과는 내적, 상황의 대표성은 외적이다.

NoteBase

문 10. 인간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노인은 청년에 비해 독감과 같은 단기적 질병에 더 잘 걸린다.

② 삶의 만족도는 30대에 절정에 이르며 60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한다.

③ 노년기에도 뇌의 가소성(brain plasticity)이 있다.

④ 노인들은 긍정적 정보보다는 부정적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노년기 발달에서 나타나는 건강, 삶의 만족도, 뇌의 가소성, 정서적 정보처리의 일반 경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뇌의 가소성은 경험과 훈련에 따라 신경계의 연결과 기능이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이다.
노년기 건강 문제는 급성 감염 자체보다 만성 질환의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노년기 정서처리에서는 긍정성 효과가 나타나 긍정 정보에 더 주의를 두는 경향이 보고된다.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진다고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노년기에 높게 보고되기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독감과 같은 단기적 질병에 더 잘 걸린다"이다. 실제로는 노년기에는 감기·독감 같은 급성 질환보다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의 부담이 더 두드러진다. 독감은 걸렸을 때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청년보다 단기적 질병에 더 잘 걸린다고 일반화하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X: 틀린 부분은 "30대에 절정에 이르며 60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한다"이다. 실제로는 삶의 만족도가 성인기 이후 일률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며, 노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높게 유지될 수 있다.
③ O: 맞는 설명이다. 노년기에도 학습, 훈련, 재활 경험에 따라 신경 연결과 기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뇌의 가소성은 계속 존재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부정적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이다. 실제로는 노년기에는 긍정성 효과가 나타나 부정적 정보보다 긍정적 정보에 더 주의를 두거나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오답 포인트

노년기를 신체 저하만으로 이해하면 ①, ②, ④ 같은 진술을 모두 맞는 말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노년기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 증가, 삶의 만족도의 상대적 안정, 긍정성 효과, 잔존하는 가소성이 함께 강조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년기 선지는 "무조건 저하된다"는 단정 표현을 먼저 의심하는 것이 좋다. 건강은 급성 질환보다 만성 질환 중심으로, 정서는 부정보다 긍정성 효과 중심으로, 인지는 저하만이 아니라 가소성의 잔존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노년기 핵심은 "만성질환 증가, 만족도 안정, 긍정성 효과, 가소성 잔존"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화계획은?

카지노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도박을 계속하게 된다.

① 고정비율 강화계획
② 변동비율 강화계획
③ 고정간격 강화계획
④ 변동간격 강화계획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강화가 반응 횟수 기준인지 시간 간격 기준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정비율 강화계획은 정해진 반응 횟수를 채울 때마다 강화가 주어지는 계획이다.
변동비율 강화계획은 몇 번 반응해야 강화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일정한 반응 횟수 뒤에 강화가 주어지는 계획이다.
고정간격 강화계획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의 첫 반응이 강화되는 계획이다.
변동간격 강화계획은 강화까지 필요한 시간 간격이 들쭉날쭉하게 바뀌는 계획이다.
카지노 도박은 이번 반응에서 보상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보다 반응 횟수의 불확실성이 핵심이므로 변동비율 강화계획과 가장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X: 고정비율 강화계획은 일정한 횟수의 반응 뒤에 강화가 주어지는 경우이다. 카지노 도박은 몇 번 시도하면 보상이 나온다는 고정된 횟수가 없으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고정비율'이다. 올바르게는 '변동비율 강화계획'이다.
② O: 변동비율 강화계획은 강화가 나오는 반응 횟수가 일정하지 않아 다음 반응에서 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든다. 슬롯머신이나 도박 행동이 지속되는 대표적 이유가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반응-강화 관계이다.
③ X: 고정간격 강화계획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의 첫 반응을 강화하는 경우이다. 도박은 '시간이 지나면 보상'이 아니라 '몇 번 만에 보상이 나올지 모름'이 핵심이다. 틀린 표현은 '고정간격'이다. 올바르게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반응 횟수 기준의 변동비율 강화계획'이다.
④ X: 변동간격 강화계획은 강화가 주어지는 시간 간격이 불규칙한 경우이다. 예고 없는 쪽지시험 준비나 불규칙한 점검에 대한 반응과 더 가깝다. 카지노 도박은 불규칙한 시간이 아니라 불규칙한 반응 횟수에 따라 강화가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변동간격'이다. 올바르게는 '변동비율'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언젠가는 대박이 터진다'는 문장에서 막연한 불규칙성만 보고 ④ 변동간격으로 가기 쉽다. 그러나 간격은 시간 기준이고, 비율은 반응 횟수 기준이다. 이 문항의 함정은 '불규칙함'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불규칙한가를 묻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강화계획 문제는 먼저 시간 기준인지 반응 횟수 기준인지부터 나눈다. 그다음 그 기준이 일정하면 고정, 예측할 수 없게 달라지면 변동으로 판단하면 된다. 도박처럼 '다음 시도에서 될 수도 있다'는 구조는 변동비율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도박은 시간이 아니라 시도 횟수의 불확실성이다. 도박 = 변동비율, 쪽지시험 = 변동간격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2. 에릭슨(E.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각 연령대와 이에 해당하는 심리사회적 도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연령대: 학령전기, 심리사회적 도전: 신뢰감 대 불신감
② 연령대: 학령기, 심리사회적 도전: 자율성 대 수치감
③ 연령대: 성인초기, 심리사회적 도전: 친밀감 대 소외감
④ 연령대: 중년기, 심리사회적 도전: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연령대와 핵심 갈등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에릭슨은 생애 각 시기마다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갈등이 있다고 보았다.
영아기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 유아기에는 자율성 대 수치감, 학령전기에는 주도성 대 죄책감, 학령기에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 대응된다.
이후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미, 성인초기에는 친밀감 대 고립감, 중년기에는 생산성 대 침체감, 노년기에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이 대응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학령전기의 과제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 아니라 주도성 대 죄책감이다.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아기에 해당한다.

② X
학령기의 과제는 자율성 대 수치감이 아니라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 자율성 대 수치감은 유아기에 해당한다.

③ O
성인초기의 과제는 친밀감 대 소외감으로 볼 수 있다. 교재에 따라 고립감으로도 표현하지만, 성인초기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고립 또는 소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같은 단계의 핵심 갈등을 가리킨다.

④ X
중년기의 과제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이 아니라 생산성 대 침체감이다.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은 노년기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오답은 모두 실제 발달과제를 다른 연령대로 한 칸씩 바꾸어 붙인 형태이다. 특히 ①의 신뢰감 대 불신감과 ④의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은 각각 생애의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대표 짝이므로 연령대를 함께 묶어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에릭슨 문제는 연령대 이름만 보지 말고 각 시기의 대표 갈등을 순서대로 대조하면 판단할 수 있다. 영아기-신뢰, 유아기-자율, 학령전기-주도성, 학령기-근면성, 성인초기-친밀감, 중년기-생산성, 노년기-자아통합감의 흐름으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에릭슨 단계는 영신, 유자, 학전주, 학근, 성친, 중생, 노자로 묶어 기억할 수 있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할 때 자신도 하품을 하거나,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 할 때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① 상호성 규범(reciprocity norm)
② 카멜레온 효과(chameleon effect)
③ 공변 원리(covariation principle)
④ 내집단 편향(in-group bia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타인의 행동이나 정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현상을 다른 사회심리 개념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카멜레온 효과는 다른 사람의 몸짓, 표정, 행동, 정서 상태를 자신도 모르게 모방하는 현상이다. 상호성 규범은 도움이나 호의를 받으면 되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다. 공변 원리는 행동의 원인을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정보의 결합으로 추론하는 귀인이론의 원리이다. 내집단 편향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리하게 대하는 경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상호성 규범은 누군가의 호의나 도움에 보답하려는 규범을 뜻한다. 제시문은 보답이나 교환이 아니라 하품, 기분 같은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상호성 규범'이며, 올바르게는 '타인의 행동과 정서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카멜레온 효과'이다.
② O: 다른 사람이 하품할 때 같이 하품하거나, 주변 사람이 행복할 때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타인의 반응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 하는 현상이다. 제시문의 '무의식적으로 흉내 내는 경향성'이라는 표현이 카멜레온 효과의 핵심이다.
③ X: 공변 원리는 어떤 행동의 원인을 판단할 때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을 함께 보는 귀인 원리이다. 제시문은 원인 추론이 아니라 모방 현상을 다룬다. 틀린 표현은 '공변 원리'이며, 올바르게는 '타인의 행동을 자동적으로 따라 하는 카멜레온 효과'이다.
④ X: 내집단 편향은 자기 집단을 더 좋게 보고 외집단보다 우대하는 경향이다. 제시문에는 집단 구분이나 집단 선호가 없고, 타인의 반응을 따라 하는 현상만 있다. 틀린 표현은 '내집단 편향'이며, 올바르게는 '행동과 정서의 무의식적 모방인 카멜레온 효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주변 사람이 행복할 때 자신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문장에서 단순한 정서 전염만 떠올리면 개념을 좁게 잡기 쉽다. 이 문항은 마지막 문장의 '주변의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흉내 내는 경향성'이 핵심 단서이며, 보답 규범이나 귀인 판단, 집단 편향과는 결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자신도 모르게 따라 한다', '흉내 낸다', '행동이나 표정을 맞춘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먼저 무의식적 모방 개념을 떠올린다. 반대로 보답, 원인 추론, 우리 집단 선호가 나오면 각각 상호성 규범, 공변 원리, 내집단 편향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카멜레온 효과는 무의식적 모방, 상호성 규범은 보답, 공변 원리는 귀인, 내집단 편향은 우리 편 선호이다.

NoteBase

문 14. 실험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중은폐 절차(double-blind procedure)와 관련된 설명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험연구에서 연구 보조원들은 어느 참가자가 어떤 처치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ㄴ. 실험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처치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ㄷ. 실험 참가자의 선입견이나 신념, 기대효과가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중은폐 절차가 누구를 눈가림하고 어떤 편향을 줄이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중은폐 절차는 참가자와 연구자 측 보조원 모두가 누가 어떤 처치를 받는지 모르게 하여 기대효과와 관찰자 편향을 줄이는 설계이다.
단일은폐는 보통 참가자만 자신의 처치 여부를 모르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중은폐는 여기에 연구자 측의 눈가림까지 추가된 형태이다.
핵심 구별점은 참가자만 모르는가가 아니라 참가자와 연구자 측 모두 모르는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맞지만 ㄷ도 맞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이중은폐 절차는 참가자의 기대효과를 줄이는 기능도 가진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② X: ㄱ과 ㄷ은 맞지만 ㄴ도 맞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이중은폐에서는 참가자 자신도 어떤 처치를 받는지 알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③ X: ㄴ과 ㄷ은 맞지만 ㄱ도 맞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연구 보조원도 참가자별 처치 배정을 모르게 해야 실험자 기대가 개입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④ O: ㄱ, ㄴ, ㄷ이 모두 맞는 조합이다. 연구 보조원이 처치 배정을 모르고, 참가자도 자신이 받은 처치를 모르며, 그 결과 참가자의 선입견·신념·기대효과가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중은폐를 참가자만 모르는 절차로 축소해서 기억하면 ㄱ을 놓치기 쉽다. 반대로 연구 보조원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ㄴ을 빠뜨리기 쉽다. 이 문항은 두 집단이 모두 배정 정보를 모른다는 점과 그 결과 기대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묶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폐 절차 문항은 먼저 누가 처치 배정 정보를 모르는지 확인하면 된다. 참가자만 모르면 단일은폐이고, 참가자와 연구자 측 보조원까지 함께 모르면 이중은폐이다. 그다음 기대효과와 실험자 편향이 함께 줄어드는지를 보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중은폐는 참가자도 모르고 연구자 측도 모른다가 핵심이며, 그래서 기대효과와 실험자 편향을 함께 줄인다.

NoteBase

문 15. 조현병(schizophrenia)의 음성증상(negative sympto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욕증

② 무논리증

③ 정서적 둔마

④ 환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현병의 음성증상과 양성증상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음성증상은 기존에 있던 정상 기능이 줄거나 사라진 상태로서 무욕증, 무논리증, 정서적 둔마처럼
의욕·언어·정서 표현의 감소가 핵심이다.
양성증상은 원래 없던 병적 경험이 새로 나타난 상태로서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처럼 무엇인가가 덧붙는 증상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욕증은 의욕과 목표지향적 행동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조현병의 대표적인 음성증상이다.

② O
무논리증은 사고와 언어의 산출이 빈곤해지는 양상을 가리키므로 음성증상이다.

③ O
정서적 둔마는 감정 표현이 줄고 정서 반응이 둔해진 상태이므로 음성증상이다.

④ X
환각은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지각을 경험하는 증상으로 조현병의 양성증상이다.
틀린 표현은 환각을 음성증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환각은 조현병의 양성증상이다.

오답 포인트

음성증상을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심한 증상으로 이해하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증상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기존 기능의 감소인지, 원래 없던 증상이 추가된 것인지의 구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욕 저하, 언어 빈곤, 정서 둔마처럼 기존 기능이 줄어든 것은 음성증상으로 본다. 환각, 망상처럼 원래 없던 지각이나 믿음이 새로 생긴 것은 양성증상으로 본다. 발문이 음성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다면 양성증상을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음성은 감소, 양성은 추가이다. 무욕증·무논리증·정서적 둔마는 음성이고 환각은 양성이다.

NoteBase

문 16. 성격심리학자 카텔(Cattell)이 개인들의 광범위한 자료에서 성격의 기본특질을 추출할 때 적용한 통계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요인 분석법(factor analysis)
② 빈도 분석법(frequency analysis)
③ 회귀 분석법(regression analysis)
④ 변량 분석법(analysis of varianc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카텔의 성격이론에서 표면특질들 사이의 상관을 묶어 기본특질 또는 원천특질을 추출할 때 쓰는 통계기법을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카텔은 많은 성격 기술어와 검사 자료를 수집한 뒤, 함께 변하는 특질들을 묶어 공통 차원을 찾아내는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의 상관관계 뒤에 있는 잠재요인을 추출하는 기법이므로 기본특질 추출에 적합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카텔은 방대한 성격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서로 연관된 특질들을 묶고, 그 뒤의 공통 요인인 기본특질을 추출하였다. 문항의 핵심 표현인 기본특질 추출과 정확히 맞는다.
② X: 틀린 표현은 빈도 분석법으로 기본특질을 추출한다는 부분이다. 빈도 분석은 어떤 반응이나 범주의 출현 횟수를 요약하는 데 쓰이며, 잠재 성격요인을 추출하는 기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기본특질 추출에는 요인분석이 사용된다.
③ X: 틀린 표현은 회귀 분석법으로 기본특질을 추출한다는 부분이다. 회귀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얼마나 예측하는지 보는 기법이므로 성격특질의 잠재 차원 추출과 목적이 다르다. 올바르게는 여러 특질의 공통 구조를 찾을 때는 요인분석을 사용하고, 회귀분석은 예측 문제에 사용된다.
④ X: 틀린 표현은 변량 분석법으로 기본특질을 추출한다는 부분이다. 변량분석은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 검정하는 기법이므로 성격의 잠재 구조를 뽑아내는 데 쓰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집단 비교에는 변량분석을 사용하고, 기본특질 추출에는 요인분석을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분석이라는 공통 단어 때문에 빈도분석, 회귀분석, 변량분석을 모두 비슷한 통계기법으로 묶어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무엇을 세는가, 무엇을 예측하는가, 무엇을 비교하는가, 무엇을 추출하는가를 구분하면 정리가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과 통계기법이 함께 나오면 그 기법의 목적부터 맞춰 본다. 잠재된 공통 차원이나 특질을 추출하면 요인분석이고, 빈도를 세면 빈도분석이며, 예측하면 회귀분석이고, 집단 평균을 비교하면 변량분석이다.

암기 포인트

카텔 = 성격 기본특질 추출 = 요인분석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서 A씨가 겪는 경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개념은?

A씨는 과거에 성인오락실의 사행성 게임에 빠졌던 적이 있다. 지금은 사행성 게임을 끊었지만 가끔 성인오락실 앞을 지날 때 그 게임의 효과음이 들리면 예전의 그 짜릿한 기분이 되살아난다.

① 고전적 조건형성
② 조작적 조건형성
③ 변별 조건형성
④ 교차 조건형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과거의 강화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과 함께 제시되던 자극이 다시 정서 반응을 불러오는 현상을 고전적 조건형성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전적 조건형성은 원래 중립적이던 자극이 반복적 연합을 통해 정서나 생리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학습이다.
조작적 조건형성은 행동 뒤에 따르는 보상이나 처벌이 그 행동의 빈도를 바꾸는 학습이다.
변별 조건형성은 비슷한 자극들 가운데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구별하는 학습이다.
이 문항의 핵심은 효과음이라는 단서가 예전의 짜릿함을 다시 불러온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성인오락실의 효과음은 원래 중립자극이었지만, 반복적으로 도박의 흥분감과 결합되면서 조건자극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소리만으로도 짜릿한 기분이 되살아난다. 이는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② X
조작적 조건형성은 행동 결과인 강화나 처벌 때문에 행동이 늘거나 줄어드는 학습이다. 이 사례는 게임을 하는 행동의 빈도 변화보다 효과음이 정서 반응을 유발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조작적이고, 올바르게는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③ X
변별 조건형성은 여러 자극 중 특정 자극에서만 반응하고 다른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구별 학습이다. 제시문은 효과음을 듣자 예전 감정이 되살아나는 연합 자체를 말할 뿐, 비슷한 자극을 서로 구별해 다르게 반응하는 상황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변별이고, 올바르게는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④ X
교차 조건형성은 이 사례의 핵심 개념이 아니다. 이 문항은 한 자극이 과거의 정서 경험과 연합되어 같은 정서 반응을 다시 일으키는지를 묻는다. 틀린 표현은 교차 조건형성이고, 올바르게는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오답 포인트

도박 행동이 과거에 강화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② 조작적 조건형성으로 끌리기 쉽다. 그러나 문항이 묻는 대상은 게임 행동이 왜 지속되었는가가 아니라 효과음이라는 단서가 왜 짜릿함을 다시 불러오는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동의 빈도가 보상이나 처벌로 바뀌면 조작적 조건형성이고, 특정 소리나 장소 같은 단서가 과거의 정서나 생리 반응을 자동으로 되살리면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암기 포인트

행동이 변하면 조작적 조건형성, 단서가 감정을 불러오면 고전적 조건형성이다.

NoteBase

문 18. 정서에 대한 James-Lange 이론을 반증하는 적절한 사례는?

① 평소에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은 이성인데 매일 버스정류장에서 보게 되면서 점점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② 환자는 척추 마취 상태지만 마취 전부터 느꼈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았다.

③ 평소 잘 챙겨준 이성이 다른 친구에게만 생일 선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할수록 심장이 뛰고 점점 더 화가 나게 되었다.

④ 이성친구와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생리적으로 흥분되었고 이는 내가 상대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서가 말초 생리반응의 지각에서 생긴다고 보는 James-Lange 이론이 어떤 사례에서 반증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James-Lange 이론은 신체 변화가 정서 경험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 따라서 말초 생리 피드백이 크게 줄면 정서도 약해져야 한다.
- 그런데 척추 마비처럼 신체 감각 피드백이 차단되어도 기존의 두려움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 이론의 설명력에 문제가 생긴다.

핵심 개념

- James-Lange 이론 = 자극 뒤에 나타난 신체적 각성을 지각한 결과 정서가 생긴다고 보는 이론이다.
- 반증의 핵심 = 신체 반응이 줄거나 차단되어도 정서 경험이 유지되는 경우이다.

적용 기준

이 문항에서는 각 선지가 정서를 신체 반응의 결과로만 설명하는 이론을 흔드는지 본다. 핵심은 말초 생리 변화가 없거나 약해져도 정서가 유지되는 사례인지 여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반복해서 접한 대상에 호감이 커진 사례이므로 단순노출효과에 가깝다. James-Lange 이론을 반증한 사례가 아니라 친숙성이 호감을 높인 사례로 고쳐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O: 척추 마비로 말초의 신체 피드백이 크게 제한되었는데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줄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신체 변화가 정서의 필수 원인이라면 두려움도 약해져야 하므로 James-Lange 이론에 대한 대표적 반증 사례가 된다.
③ X: 불쾌한 사실을 떠올리며 심장이 뛰고 분노가 더 커지는 흐름은 오히려 생리적 각성과 정서의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증 사례가 아니라 신체 각성이 정서와 함께 나타나거나 정서를 강화하는 사례로 고쳐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X: 롤러코스터로 생긴 각성을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잘못 해석한 사례이므로 흥분의 오귀인, 즉 Schachter-Singer의 2요인이론에 가깝다. James-Lange 이론 반증 사례가 아니라 각성의 인지적 해석 사례로 고쳐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모두 생리적 각성이 등장하므로 James-Lange 이론과 관련 있어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론과 관련된 사례가 아니라 이론을 깨는 사례를 찾는 문제이므로, 신체 반응이 있어도 정서가 설명되는 장면이 아니라 신체 피드백이 약해져도 정서가 유지되는 장면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서이론 사례형은 먼저 이론의 핵심 주장을 한 줄로 바꾼 뒤 선지를 대입하면 된다. James-Lange 이론은 신체 변화가 먼저이고 정서는 그 지각 결과라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그 순서가 무너지거나 신체 피드백이 없어도 정서가 유지되면 반증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James-Lange는 몸이 먼저이고 정서는 그다음이라는 이론이며, 몸의 피드백이 끊겨도 정서가 남으면 반증이 된다.

NoteBase

문 19. 망막에 분포하는 추상체(cones)와 간상체(rod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상체는 간상체보다 완전한 암순응 상태에서 빛에 훨씬 더 민감하다.

② 추상체는 간상체보다 세밀한 것을 보는 과정에 더 깊게 관여한다.

③ 추상체는 색 지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나 간상체는 색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④ 간상체는 맹점과 중심와에는 분포되어 있지 않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망막의 추상체와 간상체를 빛 민감도, 시력, 색채 지각, 분포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추상체: 밝은 곳에서 작동하며 색채 지각과 높은 시력을 담당하는 수용기이다. 결정 차이축은 색채·세부 시각이며 키워드는 밝은 곳, 중심와, 고해상도이다.
간상체: 어두운 곳에서 약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색채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수용기이다. 결정 차이축은 명암·광감도이며 키워드는 암순응, 주변부, 저해상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추상체가 아니라 간상체가 완전한 암순응 상태에서 약한 빛에 더 민감하다. 틀린 부분은 '추상체는 간상체보다 완전한 암순응 상태에서 빛에 훨씬 더 민감하다'이다. 실제로는 간상체가 암순응 상태의 광민감도를 담당하고,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 주로 기능한다.

② O
추상체는 중심와에 밀집해 있어 세밀한 형태와 세부를 구분하는 데 더 깊게 관여한다. 간상체는 민감도는 높지만 공간 해상도는 낮아 세밀한 시각에는 불리하다.

③ O
추상체는 색 지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간상체는 색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주로 명암과 밝기 변화를 처리한다.

④ O
간상체는 맹점에는 시세포 자체가 없고 중심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간상체는 중심와 바깥의 주변 망막에 주로 분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빛에 민감하다'와 '세밀하게 본다'를 같은 능력으로 묶어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약한 빛 감지는 간상체의 기능이고, 세밀한 시각과 색채 지각은 추상체의 기능이므로 ①처럼 두 기능을 뒤바꾸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광민감도와 암순응이 나오면 간상체를 먼저 떠올리고, 색채 지각·세밀한 시각·중심와가 나오면 추상체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분포 문제는 중심와는 추상체, 주변부는 간상체라는 축으로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간상체는 어둠과 민감도, 추상체는 색과 선명도라는 대비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20. 장기기억에 이미 저장되었던 정보를 망각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보가 저장은 되어 있지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② 기억된 정보가 새로 들어온 정보에 의해 간섭되었다.

③ 기억하려는 정보의 양이 기억 용량을 초과했다.

④ 기억된 정보가 오래되어 소멸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기억의 망각 원인과 단기기억·작업기억의 용량 한계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출실패는 정보가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어도 적절한 단서가 없어 떠올리지 못하는 현상이다.
간섭은 다른 정보가 개입하여 기존 정보를 회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다.
쇠퇴는 시간이 지나 기억 흔적이 약해져 회상이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기억 용량 초과는 주로 단기기억이나 작업기억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을 때 나타나는 한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보가 저장은 되어 있지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은 장기기억의 인출실패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O
기억된 정보가 새로 들어온 정보에 의해 간섭되었다는 설명은 역행간섭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기억 용량을 초과했다'는 표현이다.
장기기억의 망각은 보통 인출실패, 간섭, 쇠퇴로 설명하며, 기억 용량 초과는 장기기억 망각의 대표 설명이 아니라 단기기억이나 작업기억의 용량 한계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기억하려는 정보의 양이 기억 용량을 초과했다'는 설명은 단기기억 또는 작업기억의 한계를 설명한다.
④ O
기억된 정보가 오래되어 소멸되었다는 설명은 쇠퇴이론에 해당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기억 용량 초과'는 기억이 나지 않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기억의 망각 원인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장기기억 망각은 저장 후 인출 실패, 간섭, 시간 경과에 따른 쇠퇴로 접근하고, 용량 초과는 저장 용량이 제한된 단기기억 쪽 개념으로 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정보가 이미 장기기억에 저장된 상태인지부터 본다. 저장된 뒤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단서 부족이면 인출실패, 다른 정보의 개입이면 간섭, 시간 경과면 쇠퇴이다. 반면 처음부터 처리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는 설명이면 장기기억 망각이 아니라 단기기억·작업기억의 용량 한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장기기억 망각은 인출실패·간섭·쇠퇴이고, 용량 초과는 단기기억·작업기억의 문제이다.

NoteBase